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소감이나 의견을 나누는 활동으로,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거나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등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독서 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독서 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서 토론은 ㉠경쟁식 독서 토론과 ㉡비경쟁 독서 토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식 독서 토론에서 참여자는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바탕으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책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식 독서 토론에서는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쉬우며, 그 결과 책의 내용에 대한 성찰은 등한시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논점이 분산되기 쉽다. 반면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는 참여자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책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의 정답을 찾거나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토론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책에 더욱 몰입하게 될 수 있다.

㉢비경쟁 독서 토론의 진행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읽기 전에 게임과 같은 몸풀기 활동이나 토론 중에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등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활동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책을 읽은 후, 모둠을 나눠 모둠 지기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이후 모듬이 돌아가면서 다른 모듬이 만들어 놓은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모듬 지기는 제기된 질문과 의견을 정리하고 이전에 제기되었던 질문과 의견이 형성된 과정을 다른 모듬에 설명하는 한편, 개입을 최소화하여 모듬원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자 느낀 점을 정리하고 성찰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책을 통해 깨달은 바를 더 확장하고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비경쟁 독서 토론은 규칙 없이 자유롭게 진행해야 한다.
- ② 독서 토론은 독자가 독서에 흥미를 느끼도록 할 수 없다.
- ③ 독서를 마친 후의 활동으로는 독서 효과를 높이지 못한다.
- ④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⑤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독서 토론 과정의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

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많을수록 논점이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토론을 방해할 수 있다.
- ② ㉠에서는 참여자가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③ ㉡에서는 참여자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반박하여 이기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 ④ ㉡에서는 참여자가 책의 내용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참여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성찰하기보다는 토론에서 이기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3.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하려는 학생들의 회의록이다. ㉣와 관련하여 ㉣ ~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학생 1: 독서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학생 2: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간단한 낱말 퍼즐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학생 3: 모듬 지기는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를 예측하고 토론의 진행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 학생 4: 모듬 지기는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
- 학생 5: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여유 있게 기다려 줌으로써 긴장을 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 학생 1: 토론이 끝난 후 기억에 남는 책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 ① ㉣: 즐겁고 편안하게 책을 읽은 감상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 것이겠군.
- ② ㉣: 모듬 지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토론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야 한다고 본 것이겠군.
- ③ ㉣: 모듬 지기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토론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겠군.
- ④ ㉣: 모듬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 독서 토론 과정에서 참여자가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깨달은 바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철학자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두 사건의 외연 사이에 성립하는 실제적 연결이다. 사건의 외연이란 특정 시공간에서 사건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건 간의 연결을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인과로 인식한다. 이때 인과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중 하나는 원인으로, 다른 하나는 결과로 기능한다. 예컨대 ‘태풍 매미가 수해를 야기했다.’라는 문장에서, ‘태풍 매미의 발생’은 원인 사건으로, ‘수해의 발생’은 결과 사건으로 기술된 것이다.

데이비드슨은 개별 사례(token)와 사건 유형(type)을 구분하고, 인과관계에서 사건은 개별 사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개별 사례는 ‘태풍 매미의 발생’처럼 특정 시공간에서 단 한 번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반복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건 유형은 ‘태풍’과 같은 반복될 수 있는 일반적 범주를 말한다.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사건 유형과 달리 개별 사례는 대상이 가진 성질인 속성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 예컨대 ‘강풍’이라는 특정 속성만으로는 ‘태풍 매미의 발생’이라는 사건을 다른 사건과 명확히 구분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비드슨은 사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특정 속성보다는 사건의 외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그 표현들이 지시하는 사건의 외연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된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두 사건이, 각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원인 항 사건과 결과 항 사건의 외연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역시 동일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데이비드슨은 이와 같은 인과와 사건의 외연을 기준으로 한 동일성 판단에 관한 생각을 토대로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는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도 인과적 작용이 있다는 원리이다. 이는 어떤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실제 행위라는 물리적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둘째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건들 간에 예외 없는 엄격한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셋째는 정신적 사건은 인과적으로 완결된 닫힌 체계인 물리적 현상과 달리, 예외 없는 법칙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두 인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슨은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물리적 사건 P를 야기하는 정신적 사건 M이 존재하고, M을 물리적 언어로 기술한 사건을 M₂라고 하자.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단지 정신적 언어와 물리적 언어로 다르게 기술되었을 뿐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M과 P의 인과관계는 M₂와 P의 인과관계로 치환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물리적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이므로 엄격한 법칙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세 가지 원리를 모순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특정 정신적 사건 유형이 물리적 사건 유형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유형 동일론과 달리, 데이비드슨은 개별 사례인 사건 간에만

동일할 수 있다는 사례 동일론을 주장하였다. 유형 동일론은 ‘고통’이라는 정신적 사건 유형은 ‘뇌의 C-섬유 발화’라는 물리적 사건 유형으로 환원된다고 보지만, 고통이 인간의 신경 구조뿐 아니라 서로 다른 생물 체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다중 실현 논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반면 개별 사례 간의 환원만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동일론은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 동일론은 ㉣새로운 비판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개별 사례 사이의 인과관계에는 반드시 예외 없는 엄격한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시공간에서 일어난 ‘이 성냥을 끄는 사건’이 ‘이 성냥에 불이 붙는 사건’을 야기했다면,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예외 없는 물리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냥이 물에 젖어 있는 경우처럼 불이 붙지 않는 예외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처럼 예외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 그는 완성된 물리학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반영한 법칙을 제시할 것이라 보지만, 현재로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는 ‘돌을 던지면 유리가 깨진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법칙이 없어도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엄격한 법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써, 사례 동일론의 전제가 약화되며, 개별 사례 차원에서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동일할 수 있다는 데이비드슨의 주장 또한 그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한 데이비드슨은 사건의 동일성 기준에서 속성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그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사건의 동일성이나 인과관계는 사건의 외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속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깼다.’라는 인과관계가 돌의 ‘단단함’이라는 속성과 유리의 ‘부서지기 쉬움’이라는 속성 때문에 성립하는 것처럼, 사건 간의 인과관계는 그것을 이루는 대상들의 속성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상적인 언어 관행에 더 부합한다. 정신적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정한 욕구를 속성으로 가지는 사건 A가 어떤 행위 B를 야기할 때, 속성이 인과와 무관하다면 욕구가 없더라도 A에 의해 B는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정신적 속성은 인과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정신적 사건이 단지 행위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언어적 장치에 불과해지고, 인과적 실재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데이비드슨은 인과관계의 법칙적 성격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치환해 인과적 역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사건 자체의 인과적 가치를 사라지게 하고 말았다.

4. (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나)는 이들 사건의 속성을 분류하였다.
- ② (가)는 전통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나)는 유형 동일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인과관계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③ (가)는 개별 사례의 식별 기준을 중심으로, (나)는 인과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 ④ (가)는 특정 학자가 제시한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였고, (나)는 그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⑤ (가)는 특정 학자의 이론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고, (나)는 그 이론에서 파생된 새로운 이론이 가진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비드슨은 개별 사례가 원인 항과 결과 항을 구성한다고 본다.
- ② 유형 동일론은 정신적 개별 사례와 물리적 개별 사례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③ 데이비드슨은 특정 시공간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다중 실현 논변은 ‘고통’이라는 정신적 사건 유형을 특정 물리적 사건 유형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본다.
- ⑤ 데이비드슨은 ‘태풍 매미의 발생’이라는 개별 사례는 ‘강풍’이라는 특정 속성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6. (가)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을 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세 가지 원리를 모두 인정하면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 ③ 인과관계는 사건 사이의 관계이지만, 법칙은 사건 유형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 ④ 법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을 엄격한 법칙의 존재를 전제로 한 관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⑤ 정신적 언어를 물리적 언어로 바꿔 기술하더라도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 ㉡의 입장에서 [사례 동일론]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례 동일론은 직관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해야 하는 물리 법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사례 동일론은 정신적인 영역의 무법칙성을 일상적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 ③ 사례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동일성을 주장하기 위해 일상적 경험에 반하는 전제를 요구하고 있다.
- ④ 사례 동일론은 사건의 외연을 인과관계의 성립 요소로 삼고, 속성을 사건 동일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⑤ 사례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실재로서의 의미를 없애고 설명을 위한 언어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8.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기능주의는 정신적 사건을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정의한다. 정신적 사건은 특정한 입력을 받아 정보를 계산하고 처리하여 특정한 출력을 내는 정보 처리 과정이며, 이는 뇌 · 컴퓨터 · 인공 신경망 등 서로 다른 물리적 매질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구체화한 포더는 물리적 매질이 달라도 같은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정신적 사건으로 본다. 이러한 정신적 사건이 실현되면 근육 수축, 언어 산출 등 물리적 사건을 유발하는 인과적 효력을 갖는다. 이 효력은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환경 · 목표 · 과거 이력 등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기능주의는 모든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기초 위에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물리주의를 따르지만, 정신적 수준의 설명이 물리적 수준의 설명에 완전히 환원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① 데이비드슨이 속성이 사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기능으로 정신적 사건을 정의한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② 데이비드슨이 사건의 환원이 개별 사례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정신적 수준의 설명이 물리적 수준의 설명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③ 다중 실현 논변이 정신적 사건 유형이 서로 다른 생물 체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물리적 매질이 달라도 같은 입력으로 같은 출력을 내면 동일 기능으로 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④ 사례 동일론을 비판하는 입장이 동일한 원인 사건이라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이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⑤ 사례 동일론을 비판하는 입장이 속성을 배제함으로써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은,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과정에 의존해 실현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흡수(吸收)되고
- ② 반박(反駁)하지
- ③ 거역(拒逆)하게
- ④ 출생(出生)하는
- ⑤ 관찰(觀察)할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양한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민법은 발생한 손해를 책임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부담시키기 위해 손해 배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손해 배상 책임은 크게 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 행위 책임 그리고 담보 책임으로 나뉘는데, 각 책임에서 손해의 개념과 범위는 서로 다르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책임이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계약의 내용대로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재산상의 이익인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령 도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매도인이 도자기를 인도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도자기의 시가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뺀 것이 손해의 기준이 된다.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달리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와 같은 비재산상의 손해까지 포함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달리, 불법 행위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보 책임은 매매 등의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재산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졌을 때 성립한다. 교환물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교환물이 제삼자에게 인도되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가 행사될 수 없게 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본다. 담보 책임이 발생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담보 책임을 지는 계약 당사자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에서 다른 손해 배상 책임과는 다르게, 피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알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교환물에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교환물을 구입하기 위해 투입한 매매를 위한 조사 비용 등이 신뢰 이익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뢰 이익의 크기는 이행 이익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다. 이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한계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매수인이 교환물의 하자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담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로 인해 여러 종류의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면, 손해를 입은 자는 하나의 손해 배상 책임을 선택하여 청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예측이 가능한 통상 손해와 달리,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인 특별 손해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우연한 사정으로 교환물의 시가가 급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별 손해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또는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러한 과실을 알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 상계라고 한다.

1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 인도가 되어야 할 교환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도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매수인이 교환물의 하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담보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어느 한 당사자만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 ④ 특정 목적물을 거래하는 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해 지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만이 발생한다.
- ⑤ 특정 사건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손해 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1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 ② 손해 배상 책임은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그 책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피해의 경우 가해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 ④ 손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재산 가치의 평가가 어렵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손해를 입힌 자가 손해를 입은 자의 과실을 악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손해를 입은 자가 받을 손해 배상액을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다.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은 발생한 손해를 전부 복구하여 손해가 없었던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② 손해 배상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힌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③ 계약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의 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라도 적극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④ 계약 당사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이행 이익을 초과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과하기 때문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을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비용 등 조사 비용 4천만 원을 투입한 끝에 갑으로부터 건물 X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X가 화재로 전소되어 갑은 을에게 X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X의 시가는 최근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발표된 후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을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크기는 3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단, X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며, 위의 모든 상황에서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을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상승한 가격만큼을 배상 받을 수 없다.
- ② 을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X의 화재에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을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④ 을이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을이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불법 행위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X의 화재가 발생했어야 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형태로 소비되므로,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식품이 부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이 등장하였다. HACCP은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 감독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업체는 심사를 통해 식품에 HACCP 인증을 ㉠새길 수 있다.

①위해 요소 분석은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그 위해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위해성은 위해 요소가 인체에 ㉡일으키는 피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심각성 점수와 해당 위해 요소가 실제로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인 발생 가능성 점수를 곱하여 평가할 수 있다.

물리적 위해성 평가에서 심각성은 금속이나 유리 등의 이물질의 크기와 형태를 바탕으로 환산하며, 발생 가능성은 해당 이물질이 실제로 혼입된 채 유통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에서 심각성은 미생물이 유발하는 질병의 수준인 병원성을 바탕으로 환산하며, 발생 가능성은 해당 미생물이 실제로 유입될 오염 가능성과 특정 조건에서 증식할 증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화학적 위해성 평가에서 심각성은 화학 물질이 인체에 유발하는 독성의 수준을 바탕으로 환산하며, 발생 가능성은 해당 화학 물질이 실제로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때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와 달리, 화학적 위해 요소는 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을 일으키지 않으며, 누적에 따른 장기적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한해 위해 지수를 상세히 계산한다. 위해 지수는 일일 노출량을 일일 섭취 허용량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일일 노출량은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해당 화학 물질의 양을, 일일 섭취 허용량은 하루에 섭취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해당 화학 물질의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위해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 화학 물질이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다.

중요 관리점 감독은 제조 및 유통 과정의 중요 관리점들을 ㉢뽑아 측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우선 위해 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항목을 중요 관리점으로 뽑고,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정한다. 한계 기준이란 위해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계값을 의미하며, 중요 관리점에는 금속 이물질의 혼입 여부를 판단하는 금속 탐지기의 감도, 미생물을 살균하는 온도와 습도,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시간과 횟수 등이 있다. 이후 관리자는 중요 관리점들이 한계 기준을 ㉣벗어나는지 일정 시간마다 측정하여 기록하고, 한계 기준을 벗어난 관리점을 확인하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한다. 적합한 개선 조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해당 시간대의 생산분을 전량 격리하거나 설비 점검 후 재공정에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 관리점 감독에서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강조된다. 신뢰성은 감독이 정확하게 이뤄지는 정도를 나타내며, 관리점을 측정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성이 높다. 투명성은 감독이 분명하게 이뤄지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록의 빈도가 높아 이전 감독 기록들을 명확히 추적하기 쉬울수록 투명성이 높다.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HACCP을 통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② 중요 관리점을 뽑기 위해서는 위해 요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③ 식품에 혼입된 금속이나 유리는 존재 자체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 ④ 한계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중요 관리점들은 확인 즉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 ⑤ 살균의 온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설비 점검 후 재공정을 거칠 수 있다.

1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물질의 위해성은 이물질이 일으키는 피해의 정도를 이물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②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도 오염 가능성이 낮다면 심각성은 낮을 것이다.
- ③ 화학적 위해성 평가에서 심각성은 해당 화학 물질이 미생물을 제거하는 독성의 수준으로 환산한다.
- ④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위해 지수를 계산한다.
- ⑤ 화학 물질의 일일 노출량이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크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최근에는 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HACCP이 주목을 받는다. 스마트 HACCP은 센서가 실시간으로 중요 관리점을 측정하며, 실시간 측정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린다. 또한 일정 시간마다 센서의 측정 결과와 관리자의 조치 결과를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저장한다. 이외에도 스마트 HACCP은 중요 관리점이 추가되더라도 센서만 추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HACCP을 도입한 A 업체는 최근에 관리자가 중요 관리점들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간격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스마트 HACCP을 도입한 B 업체는 30분마다 측정 결과와 조치 결과를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저장하며, 최근에 모든 센서를 오차가 더 적은 센서로 교체하였다.

- ① A 업체의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은 이전보다 투명성이 낮아졌겠군.
 ② B 업체의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은 이전보다 신뢰성이 높아졌겠군.
 ③ A 업체는 B 업체보다 중요 관리점이 추가될 때 관리자를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적겠군.
 ④ A 업체와 B 업체의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을 관리자가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항상 같겠군.
 ⑤ A 업체의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은 B 업체보다 신뢰성이 낮으므로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더 폭넓게 설정해야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입(注入)할
 ② ㉡: 유발(誘發)하는
 ③ ㉢: 선정(選定)하여
 ④ ㉣: 일탈(逸脫)하는지
 ⑤ ㉥: 경미(輕微)할수록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라구야 석운 선생 퇴관 후에나 쓸모가 있을지, 지금 당장에야 아무런 이득도 없구 어디다 이걸 쓸니까?”

“그것도 옳은 말씀이시구만, 어제 강명진 형이 한 벌 직접 만들어서 준 것이랍니다.”

오준도 수하인 강명진과 교분은 그리 두텁진 않아도 잘 알고 있는 편이었다.

“천지가 변했어도 수하인은 변한 것이 없구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석운과 오준은 도장을 가운데 놓고 서로 빙긋이 마주 웃었다. 결재를 받으러 비서가 두세 번 드나든 다음 방 안은 또 조용했다. 기름 난로의 불길의 과한지 등에 땀이 흐를 정도다.

“지금 보니 석운 결재 도장이 틀렸구만요. 이왕이면 생각났을 때 하나 새겨 두도록 합시다.”

“그런 생각도 없진 않지만…….”

“결재 도장이야 좀 위엄이 있어야지, 도장부터 눌러서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간절했지만 석운은 만들어 준 사람 눈치가 보일까 잠자코 있었다.

“이것은 다시 갈아 제 것이나 파구, 석운은 좀 잘생긴 것을 골라 새로 하나 팝시다. 만 환 정도나 주면 제법 쓸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준은 가타부타 석운의 결정도 없이 ㉠전황석 도장 한 방을 자기가 간직해 버렸다. 석운은 ㉡좀 섭섭했지만 요즈음 친하게 지내게 된 의리로서 오준이 집어넣은 것을 도로 내놓으라곤 할 순 없었다.

“수하인, 격은 멋진 사람이지만 궁티가 벗질 못한 사람이거든…….”

“암, 더 말하면 입이나 아프지요.”

오준이가 맞장구를 쳐주는 통에 석운은 도장을 바꾸는 일로 수하인에 대해 품은 미안스럽던 생각도 풀리는 것 같았다.

석운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슨 말인지 한참 숙덕거리고 난 오준은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이며 싱긋 웃었다.

“글쎄 별로 염려할 건 없을걸요, 그 문젠…….”

오준의 벌린 세 손가락에 절로 힘이 나는 듯 석운은 자신 있게 장담을 했다.

오준이 나간 다음에, 석운은 폭신한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

매화옥에서 나온 지 불과 반년이건만 아련한 옛일 같았다.

수하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인물이긴 했다.

서화에 눈을 뜬 것도 말하자면 서당개 삼 년에 음풍월 한다는 격으로 수하인의 영향이 컸다.

매화옥 이십 년의 생활을 돌이켜 생각하면 절로 눈살이 찌푸

[A] 려지는 고생살이었다.

수하인과 벗하게 된 것도 말하자면 일제 때엔 환경이 주는 불만에서 접근했고, 해방 후 벼슬에 오르기 전까지는 혼란과 울분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평을 수하인의 격 다른 품속에 삶으로 참아 낼 수 있었기에 가깝게 지낸 사이다.

길이 달라진 오늘, 스스로 수하인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이질적인 존재요 또한 당금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인물 같기만 했다.

벼슬에 오른 지금 석운으로서선 도저히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안 될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수하인에 대하여 야릇한 동정이나마 금할 순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오준은 도장을 들고 도장방에 간다. 도장방 주인은 새로 도장을 파려는 오준에게 모종의 제안을 한다.

오준은 그 말엔 귀가 솔깃했다. 이 하치않은 돌로 된 도장을 내주고 울긋불긋해 **위엄있어 보이는 계혈석 도장**을 파면 **수정이나 상아 도장을 그냥 새겨 준다니 꽤찮은 흥정**인 것 같았다.

“그러실 것 없이, 이 도장을 맡으시고 계혈석 도장에 상아 도장 하나 더 끼워 만 환으로 합시다.”

주인은 ㉞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다**. 부른 값보다 좀 싼 값 이긴 해도 수하인의 정성이 담긴 도장을 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까닭이다.

서법(書法)과 도법(刀法)은 물론, 돌을 다루는 것까지 도장방 주인은 수하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사람이다. 주인은 수하인을 찾을 생각으로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다**. 동소문 집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좁은 방이지만, 알뜰스레 꾸며 놓은 건넌방에 수하인은 등불 밑에 단좌하고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 웬일이고? 가게를 일찍 닫았구만…….”
 “네…… 오늘 좀 **이상스러운 물건**이 들어왔기에 일찍 문을 닫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내놓는 도장갑을 보고 수하인은 ㉡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연고이고?”

젊은 친구는, 오준이라는 작자가 그 도장을 갖고 와서 결재 도장으로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던 말에서부터 낱낱이 일러바쳤다.
 “자네 복일세…… 술을 좀 하던가?”
 조용히 묻고 난 수하인은 술상을 청했다.
 술을 들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누르려고 애쓰는 것같이 보여, 젊은 주인은 ㉠ **오히려 미안스러웠다**.
 “그것이 전황석일세, 자네 처음이지?”
 “네?”

젊은 도장방 주인은 전황석이라는 말에 **주기가 혹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
 “원정 민영익 씨가 쓰던 **전통이 담긴 인장**이지…… 그것이 어쩌다 거부(巨富) 이모(李某)가 갖고 있던 것을 우연스레 구했기에, 석운이 벼슬을 했어도 선사할 것이 있어야지. 그래 보냈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구만. 자네 손에 갔으니 이제야 **제값을 불러 줄 사람을 찾은 셈**일세.”

수하인이 갖고 가라곤 하지만 젊은 주인은 들고나올 수가 없었다. 자기 솜씨라면 뽀뽀 갈아버려 새로운 도장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 재료가 귀중한 것이라 해도 스승의 손길이 닿아 마음대로 갈아 버릴 수 없는 물건인즉,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다.

“**전황석을 알고 쓸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선생님이 보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하인은 몇 번 사양했지만 젊은 친구의 고집도 어지간했다. 오준에게 줄 계혈석 도장을 새겨 주기로 하고 수하인은 그것을 받아 두었다. 버릴 수 없는 친구에게 버림을 받은 듯싶어 ㉢ **한없이 섭섭했다**.

- 정한숙, 「전황당인보기」 -

1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에 대해 변화된 인식을 관념적으로 서술한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독백적 진술을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 ④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처지가 달라진 계기를 암시한다.
 - ⑤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19.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잠자코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석운이 ㉠을 대신할 새로운 도장을 내심 바라면서도 오준에게 부담이 될 것을 의식하여 노골적인 요구를 자제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도로 내놓으라곤 할 순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석운이 ㉠을 소유하는 것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상스러운 물건’으로 인해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다’는 것으로 보아, 도장방 주인이 오준과 달리 ㉠을 만든 이의 정성을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주기가 혹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는 것으로 보아, 도장방 주인이 수하인을 통해 ㉠의 정체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놀라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값을 불러 줄 사람을 찾은 셈’이라는 것으로 보아, 수하인은 도장방 주인을 석운과 달리 ㉠의 진가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자신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간 상대의 일방적 행동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 ② ㉢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보다 수하인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반응이다.
 - ③ ㉣는 자신이 만든 물건이 의외의 인물에게 전달된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드러나는 반응이다.
 - ④ ㉤는 자신의 행동이 본의 아니게 상대의 심리적 동요를 야기했다는 인식에서 촉발된 반응이다.
 - ⑤ ㉥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인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책감이 드러나는 반응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황당인보기」는 도장의 재료가 되는 인장석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배금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유구한 전통과 내재적 가치를 경시하고 이해득실과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가치 간의 위계질서가 공고화된 시대상을 조명한다. 이 작품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영합하여 세속의 성취만을 지향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과 현실의 가치체계에 포섭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영위하며 내면의 품격을 유지하는 인물을 대비하여,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암시하고 있다.

- ① 주인이 ‘전황석을 알고 쓸 사람이 몇 사람 있겠’나며 고집을 부리는 것에서,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암시하며 가치 간의 위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군.
- ② 오준이 ‘수정이나 상아 도장을 그냥 새겨 준다’는 말을 ‘괜찮은 흥정’이라고 생각하며 ‘위엄있어 보이는 계열석 도장’을 파려는 것에서, 실리를 추구하며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석운이 ‘벼슬’에 올라 수하인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서, 배금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영합하여 세속의 성취만을 지향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격 다른 품’을 지닌 수하인이 ‘천지가 변했’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서, 현실의 가치체계에 포섭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며 내면의 품격을 지키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도장이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오준의 평가에 석운이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하는 것에서, ‘전통이 담긴 인장’에 내재된 가치를 알아 보지 못하고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인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긴 세월을 오랑개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개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인 오랑개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개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개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개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개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개꽃

—이용악, 「오랑개꽃」—

(나)

삶은 계란의 껍질이 /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앓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늪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김수영, 「파발 가에서」—

(다)

창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오는 자이다. 창이란, 우리의 태양임을 의미한다.

사람의 눈이 창이고, 집은 그 창이 눈이다. 오직 사람과 가옥에 멈출 뿐이라. 자세히 점검하면 모든 물체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의하든지 반드시 다른 물체와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눈에 매력을 느낌과 같이 집집의 창에 한없는 고혹을 느낀다. 우리를 이와 같이 전인하여 놓으려 하지 않는 창 측에 우리가 앉아 한가히 내다보는 것은 ㉢하나의 헛된 연극에 비교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즉 그것은 자연과 인생의 무진장한 풍일(豊溢)이다. 혹은 경우에 따라 세계 자체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창 밑에 창이 있을 뿐 아니라, 창 옆에 창이 있고, 창 위에 또 창은 있어—㉣눈은 눈을 통하여, 창은 창에 의하여 이제 온 세상이 하나의 완전한 투명체임을 볼 때가 일찍이 제군에게는 없었던가.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서로를 잇는 창 옆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사람의 보려고 하는 욕망은 너무나 크다. 이리하여 사람으로부터 보려고 하는 욕망을 빼앗는 것처럼 큰 형벌은 없다.

그러므로 세태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는 창을 사람 으로부터 빼앗는 감옥은 참으로 잘도 토구된 결과로서의 **암흑한 건물에 사람을 넣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창을 통하여 보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보기를 무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는 호기심에 반드시 복종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을 한없이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창에 나타날 것에 대한 공포를 갖는 것**이다. 창은 어떠한 악마를 우리에게 소개할지 사실 알 수 없는 까닭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고을과 고을 사이에, 도로 산천을 뚫고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주야로 달음질치는 기차, 혹은 알기도 하고, 혹은 모르기도 한, 변화한 거리와 거리에 질구하는 전차, 자동차—㉤그것은 단지 목적지에 감으로써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다, 적어도 나에겐 그것이 이 세상의 생활에 직접으로 통하고 있는 하나의 변화무쌍한 창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는 듯싶다.

(중략)

우리로 하여금 항상 창 측의 좌석에 있게 하는 감정을 사람은 하나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단정하여 버릴지 모른다. ㉔그러나 사람의 보려 하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은 이를 헛된 호기심으로만 지적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것 같다.

참으로 사람이란 자기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의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봄으로써 오직 살 수 있는 엄숙한 ㉕사실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상도하여 보면, 얼마나 많이 창 측의 좌석이 위급한 욕망에 영향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

- 김진섭, 「창」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여 자연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한다.
- ④ (나)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다)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삶의 무상감을 나타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의 중심 소재가 되는 자연물은 오랑캐와 본질적으로 무관함에도 ‘오랑캐꽃’으로 불리며 꺾박받는 존재이다. 화자는 ‘오랑캐꽃’을 매개로 고려 군사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내몰린 여진족의 역사를 상기하는데, 이러한 여진족의 상황은 일제에 의해 고국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과 동일시하여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오랑캐꽃’에 연민을 드러내며 공감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을 살아가던 작가가 당시 우리 민족의 설움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랑캐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오랑캐꽃’으로 불리며 꺾박받는 중심 소재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오랑캐와의 싸움’을 한 ‘우리의 머언 조상들과 가랑잎처럼 굴러’간 ‘오랑캐’는,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작가가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오랑캐가 ‘도래샘’과 ‘띠집’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다는 것에서, 고려 군사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내몰린 여진족의 역사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 온 오랑캐의 상황은, 일제에 의해 고국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처지와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주며 오랑캐꽃에게 ‘목 놓아 울어’보라는 것에서, 연민의 정서를 기반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설움을 위로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에서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는 2연의 ‘움직일 때’와 대비되어 새로운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낸다.
- ② 1연에서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고 3연에서 ‘대낮이 지나도록’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점차 깊어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 ③ 2연에서 ‘너의 그림자’는 1연의 ‘얻는다는 것’에 관한 깨달음을 외면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화자의 미련을 드러낸다.
- ④ 2연에서 ‘먼지 앓은 석경’처럼 오래된 물건을 마주하는 상황은 3연에서 ‘묵은 사랑’을 저버린 것을 ‘늪우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 ⑤ 3연에서 ‘조로의 물’은 1연에서 화자가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 펼쳐 내야 할 ‘잃는 것’에 대응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25.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눈과 창 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② ㉔: 창을 통해 보는 광경이 허상이 아니라 자연과 인생을 비롯한 세계의 참모습을 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③ ㉔: 모든 물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세상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부각하는 진술이다.
- ④ ㉔: 인간이 이동하려는 목적의 이면에는 세상을 직접 보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부각하는 진술이다.
- ⑤ ㉔: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창을 통해 외부를 보려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부각하는 진술이다.

26. ㉔과 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은 조상들이 내린 결정의 근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
- ② ㉔은 인간의 삶에서 경계해야 할 그릇된 삶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 ③ ㉔은 오랑캐와 오랑캐꽃의 외형적 유사성에 대한, ㉔은 다른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④ ㉔은 오랜 전란의 종식을 염원하는 조상들의 심리에 대한, ㉔은 창 측의 좌석을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통찰을 내포하고 있다.
- ⑤ ㉔은 대상이 오랑캐꽃으로 이름이 붙여진 유래에 관한, ㉔은 개인 간의 서로 다른 성향에 관한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대상을 응시하는 행위는 인간 내면의 욕망이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나)는 파발을 응시하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화자는 ‘묵은 사랑’으로 표상되는 구시대의 산물을 모두 청산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는 창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행위를 인간 본연의 욕망으로 이해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순된 감정을 제시하는 한편, 욕망이 억압되는 상황도 함께 보여 준다.

- ① (나)에서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는 것은, 파발을 응시하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묵은 사랑’이 ‘젖어 있’다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이겠군.
- ③ (다)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서로를 잇는 창 옆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것은, 창을 통해 타자를 비롯한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행위를 인간 본연의 욕망으로 이해하는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창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동시에 그것에 나타날 대상에 ‘공포를 갖는’ 것은 인간의 모순된 감정으로 인해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행위를 단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얻는다는 것’이 ‘곧 잃는 것’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구시대의 산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다)에서 ‘암흑한 건물에 사람을 넣는’다는 표현은 인간 본연의 욕망이 억압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첩 일지가 가만히 최 씨의 방에 들어가 은지환 한 쌍을 도적질하고, 최 씨의 글씨를 모색하여 본을 뜨니 흡사한지라. 편지 한 장을 쓰고 은지환을 그 안에 넣어 단단히 싸서 봉하고는, 차들에게 부탁하여 남몰래 방물장수 한 명을 데려다 달라 하니, 차들이 ㉡그 이튿날 노구(老驅) 한 명을 데리고 왔거늘, 일지가 편지를 내어 주며,

“이 편지 봉한 것을 지금 노구의 짐짝 안에 넣을 것이니 내일 식후에 집 안으로 들어와 이러이러하라.”

하고, 보내며,

“노구는 꼭 최 씨의 방에 놀다 돌아갈 것이며, 내 따라 나가 편지를 찾을 것이니 나를 저지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내어주고 달아나라. 나는 이를 진사가 보도록 놀란 기색을 하리라.”

하며, 돈 삼십 냥을 주니, 노구가 허락하고 편지 봉을 받아 가지고 가더라.

㉢내일 식후가 되어 노구가 짐짝을 이고 들어와 사라 하니 장 부인이 왈,

“건넌방에 가 보라.”

노구가 최 씨의 방에 들어와 이윽히 담화하다가 가거늘, 일지가 엿보다가 노구가 사랑 앞을 지나가매 급히 ㉣쫓아가 붙들고 왈,

“방물장수 내가 자수 두어 개 사자 하는데 어찌 대답도 아니하고 가나요?”

노구가 돌아보며,

“길이 바쁘니 어서 사소서.”

일지가 자수 살 것을 내며 뒤적이다 편지 하나가 손에 잡히거늘,

집으려 하니 노구가 슬쩍 붙들어,

“그것을 넘볼 것이 아니라 자수나 사소서.”

일지가 ㉤뿌리치며 왈,

“안 보여 주려 하는 것은 기어이 볼 것이라.”

하고, 봉한 것을 뜯음에 노구가 바빠 짐을 거두어 가지고 대문 밖으로 달아났다. 일지가 접은 편지를 보다가 놀라 진저리 치니, 진사가 지나가다 괴이하게 여겨,

“그것이 어떤 편지며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고.”

일지가 접어 감추고,

“진사님 아실 바 아니로소이다.”

진사가 더욱 수상케 여겨 꾸짖으며,

“그 편지를 내어라.” / 하니, 일지가 마지못해 편지를 건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진사는 일지에게 건네받은 편지에서 며느리 최 씨가 외간 남자에게 내일 밤에 보자고 하는 내용과 은지환을 각별하게 여겨 달라고 하는 내용을 읽고 크게 놀라 곧바로 최 씨를 부른다.

부름을 듣자마자 최 씨가 들어와 시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못함을 보고, 무슨 일인지 몰라 송구하여 들어와 윗목에 서니 진사가 입구에서 보다가 묻기를,

“너의 은지환은 어찌 하였느냐.”

최 씨가 대답하기를,

“제 방에 있나이다.”

하고, 방에 돌아가 찾으니 없는지라. 온갖 그릇을 낱낱이 찾다가 어찌할 수가 없어, 그저 올라가 고하기를,

“상자에 두었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나이다.”

진사가 ㉦고성을 내며,

“내 아들 창인이 대국에 멀리 가 있으니 본처로서 집안의 소중한 물건을 천금같이 여기라 하였으나, 은지환을 외간 남자에게 넘겼으니 어찌 있으리오?”

최 씨가 은지환이 없어진 연유를 알 도리가 없어 돌아서서 우는 지라. 진사의 아내인 장 부인이 괴이 여겨 왈,

“그것이 어인 말씀입니까?”

진사가 대답치 아니하고 하는 말이,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도다.” / 한탄하더라.

여중 금연이 별당에 가 창인의 또 다른 본처인 박 씨에게 여쭙되,

“진사님께서 무슨 일인지 저 건넌방 애기씨를 대단히 꾸중하시디이다.”

박 씨가 놀라 큰방 문 앞에 가 들으니, 막측(莫測)한 말이라 어찌 알리오. 최 씨가 나오거늘 박 씨가 들어가 묻자오되,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로 저리 꾸중하시니까?”

진사가 묵묵부답하다가 ㉧편지를 내치며,

“네 보아라.”

한데, 박 씨가 그 편지를 보고 놀랍고 괴상하여, 생각하니 최 씨가 분명 그럴 사람이 아니나 글씨는 최 씨의 필적 같고 방물장수는 최 씨의 방에 다녀갔는지라. 정황만으로는 명명백백하니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릴없이 편지를 내어놓고 나오니 최 씨가 묻기를,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박 씨가 왈,

“사연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더이다.”

최 씨가 억울해하며 왈,

“그것이 무엇 모를 일입니까? 첩 일지가 지은 모해로소이다.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어찌 저만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하며, 최 씨가 눈물이 비가 오듯 하니 그제야 박 씨도 최 씨의 결백함을 시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음에 통탄하며 그녀를 붙들고 우는 지라. 진사가 일어나 일지의 방에 들어가니 일지가 왈,
“편지에 외간 남자가 내일 밤에 온다 하였으니 소녀가 엿보다가 수상한 종적이 있사오면 통지할 것이니 잠을 도리를 하소서.”
진사가 ‘그리하라’ 하고 사랑으로 들어가는지라.
㉠이튿날 밤에 차돌이 일지에게 또 오니, 으스스한 틈에 일지가 차돌에게 일을 꾸며 부탁하였다.
“밖으로 나가서 최 씨의 방 마루 밑에 들어앉았다가 무슨 소동이 나거든 달아나라.”
하고 자기는 사랑에 나가 진사에게 고하기를,
“진사님 계시나이까? 과연 인적이 있는 듯 하여이다.”
진사가 급히 일어나 사랑에서 나와서 보니 어떠한 놈이 **최 씨의 방 마루에서 나와 담을 넘어** 달아나거늘, 진사가 황급하게 ㉡소리를 질러,
“흉악한 놈이 과연 왔도다. 적실무의(的實無疑)하도다.”
- 작자 미상, 「정진사전」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지는 차돌이 몰래 가져온 은지환을 편지에 넣어 노구에게 건넸다.
- ② 노구는 일지의 부탁대로 편지를 최 씨의 방에 몰래 남기고 황급히 달아났다.
- ③ 최 씨는 진사에게 의심받게 된 상황에 대해 박 씨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 ④ 별당에 있던 박 씨는 금연으로부터 진사가 최 씨를 질책한 연유를 전해 듣고 큰방으로 건너왔다.
- ⑤ 일지와 함께 최 씨의 방 근처에 숨어 있던 진사는 낮선 자가 집 밖으로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2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계획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은 인물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 ② ㉠에 인물들이 함께 계획을 수행하며 맺고 있던 협력 관계는 ㉡까지 유지되었으나, ㉡에 그 관계가 와해될 조짐이 나타난다.
- ③ ㉡은 인물이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계획이 진행되는, ㉡은 인물의 의도와 달리 예기치 않게 계획이 어긋나는 시간이다.
- ④ ㉡에 합의된 약속의 실행으로 ㉡에 유발된 인물 간의 갈등은 ㉡에 접어들며 한층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 ⑤ ㉡에 인물이 꾸민 일은 ㉡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물의 결백함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30.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구’에게 주었던 물건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일지’의 행동으로, ‘노구’로 하여금 사전에 계획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 ② ㉠: 예상치 못한 상대의 반응에 대처하는 ‘일지’의 행동으로, ‘진사’를 속이기 위한 계락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③ ㉡: 소중한 물건을 부적절하게 처분한 ‘최 씨’의 행실에 실망감을 느낀 ‘진사’의 행동으로, ‘장 부인’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 언짢은 심경을 표출하는 ‘진사’의 행동으로, 자신이 ‘최 씨’에게 한 언행이 편지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 ⑤ ㉡: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한 ‘진사’의 행동으로, ‘진사’가 ‘최 씨’의 죄를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처첩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정진사전」에서 첩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본처에게 정조 훼손의 누명을 씌우는 계락을 사용한다. 이때 첩이 꾸민 음모를 이미 간파하고 있는 본처와 달리, 가정을 통솔하는 가부장은 처첩 문제에 대해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본처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음모의 표적이 되지 않은 또 다른 본처는 가부장의 무능함을 인지하는 한편, 첩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누명을 씌운 본처를 음해하는 추가적인 사건을 일으킨다.

- ① 진사가 ‘은지환을 외간 남자에게 넘겼’다고 최 씨를 추궁하는 데서, 본처에게 정조 훼손의 누명을 씌우려는 첩의 계락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진사가 장 부인의 질문에 ‘대답치 아니하’고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다고 탄식하는 데서, 가정을 통솔하는 가부장이 처첩 문제에 대해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박 씨가 ‘어떻다 할 수 없어 하릴없이 편지를 내어놓고 나오’는 데서, 또 다른 본처가 첩이 꾸민 음모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한 가부장의 무능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최 씨가 ‘그것이’ ‘첩 일지가 지은 모해’라고 말하는 데서, 본처가 현재 겪고 있는 곤경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첩에 의한 것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차돌이 진사가 나타나자 ‘최 씨의 방 마루에서 나와 담을 넘’는 데서, 첩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본처를 음해하는 추가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鏡城)이 접경인데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서생의 일은 한묵(翰墨)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 리 밖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어라
홍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 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이고
높고 험한 북방의 철령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겨 보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내어 쏟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장안(長安)이 어디오 임금이 계신 옥경(玉京)이 가려졌도다

[A]

(중략)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시운(時運)의 탓이런가 운명에 매였는가
진대 백수(白首)에 세월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은 원망도 많은지고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꼬
어부 이 말 듣고 낚싯대 돌려메고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니
세상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온갖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 조우인, 「출새곡」 -

*회양 옛 사실: 한나라 무제 때 급장유가 선정을 베푼 일. 회양은 강원도 북방의 고을로, 급장유가 태수를 지낸 회양과 이름이 같음.
*초택 청빈: 초나라 연못 푸른 마름. 초나라 굴원이 유배지에서도 변치 않은 충절을 지냈던 사실을 의미함.

(나)

청계상 반구정(伴鷗亭)에 극목소쇄 풍경일다
무심한 백구들은 자거자래 무삼 일고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모를쏘나 <제1수>

백로주 돌아들어 반구정을 돌아가니
장연은 일공한데 호월은 천 리로다
아이야 풍광이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제2수>

청산은 만고청(萬古靑)이요 유수는 주야류(晝夜流)라
산청청 수류류 그지도 없을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오리라 <제11수>

- 신지, 「영언십이장」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현실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②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대상의 영속성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다.
 - ③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 ⑤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드러낸다.

3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험난한 ‘세상살이’와 비교하여 ‘북방의 철령’을 ‘평지’로 여길 만큼 현실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화자는 ‘회양 옛 사실’을 통해 스스로를 역사적 인물과 연관 지어 ‘변방 부임’을 하게 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홍인문’을 거쳐 ‘녹양’에서 말을 갈아타는 행적을 제시하며 ‘장안’을 떠나 ‘국경’으로 향하는 여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화자는 ‘뜻밖’에 하게 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옥경’에 계신 임금께 절을 올리고 ‘이 한 몸 다 잊었’다며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는 ‘서생’이 해야 할 일과 실제로 ‘늙은이’가 하게 된 일을 대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의 화자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임금의 명에 따라 지방관으로 임명된 자신의 부임지를 유교적 이념을 실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면서도, 그곳을 중앙 정계에서 소외된 곳으로 여기며 탄식하기도 한다. (나)의 화자는 자연물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자연의 올바른 이치에 따라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삶에 흥취를 드러낸다. 이때 (나)는 자연 속에서 은일하는 만족감을 향유하려 한다는 점에서, 변방으로 부임한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가)와 차이를 보인다.

- ① (가)는 ‘북방 이십여 주’의 ‘치병 목민’을 맡은 것에 대해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을 생각하는 데서, 임금의 명에 따라 지방관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가)는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으로서 소회를 드러내는 데서, 변방의 부임지를 중앙 정계에서 소외된 공간으로 여기는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③ (나)는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겠다는 데서,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하며 자연의 올바른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군.
- ④ (가)는 ‘평생 먹은 뜻’을 거론하며 ‘시운’과 ‘운명’을 탓하는 데서 변방에 부임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나)는 ‘무심한 백구들’을 ‘벗’으로 여기는 데서 자연물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군.
- ⑤ (가)는 ‘초택 청빈’을 떠올리며 ‘이 시름을 잊’으려는 데서 유교적 이념의 실현을 통해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는 ‘아이’에게 ‘아니 놀고 어찌하’냐고 묻는 데서 자연 속에서 은일하는 만족감을 향유하려는 태도가 나타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